

제 7 호

연중 제 2 주일  
(공현후 제 2 주일)

1973. 1. 14

# 숲 정 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강론】

## 「천주의 어린양...」 <요한1. 36>

오늘 미사 전체의 복음은 천주의 어린양을 보라고 외치는 요한 세자의 말씀입니다.

“천주의 어린 양”이라면 바로 연결 되어 나오는 “세상의 죄를 없애 주시는 분이시로다”하신 말씀이 연상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속죄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사이야 예언서의 수난을 당하시는 “하느님의 종”을 더욱 구체화하고 사실화한 성서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를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들과 하나로 결합 하심을 보여 주셨고 진실로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그리스도를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는 눈부신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간디는 자신이 고통을 당함으로써 인도의 국민에게 자유와 독립을 줄수 있다는 신념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서 고통 받는 국민의 중으로서 생활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이보다 몇십배의 더 큰 일이었습니다.

죽 유메아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 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요한이 “보라 천주의 어린 양” 이라고 외친 말씀 가운데에는 이러한 사상도 엿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를 통해서 천주의 성신이 우리들 속에 들어 가시어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적 생명체로 변화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의 필요를 절실히 느낄때에는 천주님을 열렬히 사랑 합니다. 기도도 잘드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두손을 모아 기도 드립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온할 때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재미있게 놀때에는 신의 섭리도 은총도 아랑곳 없게 됩니다.

6. 25때를 기억해 봅시다. 많은이들이 “천주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꿇어 두손을 모았을 것입니다. 2천년이 흐른 오늘의 교회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5천여 명의 식구를 7개 빵으로 배부르게 한 사실 만을 기억하는 태도로 나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안에 세를 받은 것을 기억 하며 세자 요한이 제시한 “보라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로다”하는 분앞에 “불쌍히 여기소서”하고 오늘 미사중에 기도 합니다.

서학동 주임 김영일 신부

## ※ 이 주일의 미사 ※

□**입당송** 은 땅이 당신 앞에 꿇어 엎드려 당신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나이다.

□**제1독서** <사무엘 3 : 3-10, 19>

주여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나이다.

□**창세기**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만, 당신이 이 몸을 끌어 보셨네. 당신은 내 입으로 새로운 노래를, 우리 하느님께 송가를 부르게 하시었네. ◎보소서 이 몸은 당신 뜻을 따르기 위해 대령했나이다.

□**제2독서** <고린토전서 6 : 13-15, 17-20 성서 p. 379>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메세이아신 그리스도를 뵈왔으니, 그를 통하여 은총과 진리가 왔도다. 알렐루야.

□**복음** <요한 1 : 35-42 성서 p. 204>

어디 계시는지 알아 보고 그와 함께 머물렀다.

###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소.
2. 주여,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시어 당신을 거스리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소서. ◎
3.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청결케 하시는 주여, 청순한 마음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
4. 주여, 어둠던 날들과 같이 살지 않고 영원한 빛이신 당신과 함께 살게 하소서. ◎
5. 주여, 우리로 하여금 눈물이 웃음을 불러오고, 사망이 우리의 생을 고상하게 하여 의혹이 믿음의 날개를 드높게 펼치게 하소서. ◎

□**영성체송** 내 앞에 상을 차려 주시니, 내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오다. 후 하느님,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고 또 믿나이다.

## ※이 주간의 성경 ※

- 15(월)독서(히브리5 : 1-10, 성서 p. 501)  
복음(마르코2 : 18-22, 성서 p. 79)
- 16(화)독서(히브리6 : 10-20, 성서 p. 503)  
복음(마르코2 : 23-28, 성서 p. 79)
- 17(수)독서(히브리7 : 1-3, 15-17성서 p. 504)  
복음(마르코3 : 1-6, 성서 p. 80)
- 18(목)독서(히브리7 : 25, -8 : 6성서 p. 505)  
복음(마르코3 : 7-12, 성서 p. 80)
- 19(금)독서(히브리8 : 7-13, 성서 p. 506)  
복음(마르코3 : 13-19, 성서 p. 80)
- 20(토)독서(히브리9 : 2-3, 11-14성서 p. 507)  
복음(마르코3 : 20-21, 성서 p. 81)

□ 교리교실 □



### 가톨릭 교리

박진량 신부

우리는 가끔 교리를 교회가 주장하는 이론체계로만 단 순히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요지부동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거기에 한획이나 한점도 더 첨가하거나 빼놓 으면 이단 설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된 나 머지 일반 신자들은 혹시 틀릴까 두려워 하여 자기의 삶 아 있는 신앙 체험에서 나오는 생각을 발표하기를 꺼려 하고 스스로 신앙에 대한 인식을 키워 나가는데에 크게 부자유를 느끼며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말만을 되풀이 하는데에 그치는 수가 있다. 「당신들이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당신들은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입니 다. 그러면 당신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당 신들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요한 8/31-32>라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초대신자들도 그렇게 부자유를 느 켜올까?

교리가 진리의 표현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 진리는 교착 관념체계가 아니고, 한번에 완전 히 파악된 무기물에 대한 지식의 총화가 아니라, 살아있 는 생명체이신 하느님 자신이요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다. 이 진리는 여러가지 시대 적이고 인간적인 제약과 언어적인 제한속에서만 그 표현 이 가능하다. 또 그 표현된 내용은 각자가 누리고 있는 경험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게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리교실」에서는 그 알맹이 진리 즉 부활하 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터득할 수 있도록, 그래 서 조금이라도 더 올바른 신앙을 가져 구원할 수 있도 록, 조금이라도 더 크리스찬다운 사랑을 베풀도록 제시 하기만 하면 족한 것이다. 더구나 「금정」의 「교리교 실」난처럼 한정된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교리교실」난에 대충 다음과 같은 짜임새로 교리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나는 모든 교리 전부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 니고 기성신자들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상을 부 각시킬 수 있도록 수필회를 써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그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상에 대하여 크리스찬적인 몇 가지 관찰을 하겠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믿는이로서 교회와 세상에 봉사하는 「신자」상을 제시하려나.

□ 양지쪽 □



### 우 리 (We)

지난 실날에 이리를 갔었다. 전주에 돌아올때는 기차 를 타고 왔다. 소위 기동차를. 그전에는,그러니까 그 기 동차가 새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 기동차가 역을 출발하 면 문이 자동적으로 닫혔다. 그런데 내가 타고 온 기동 차는 그렇지 아니했다. 문이 항상 열린채로 있어서 상당 히 선선하게(?)여행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기분이 별로 안좋았다. 왜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아니했을까?

어렸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 났다. 기차를 타고 보면 언제나 어느 역에서나 적어도 3등 완행열차 안에서라면 흔하게 볼 수 있던 모습이. 반듯하게 깔리어져 나간 의 자의 우단 등받침이나 깔개 말이다. 그것이 나흔자만 볼 수 있었던 일은 아니다. 들은 말에 의하면 구두를 닦기 에 그 우단 조각이 매우 적당하기 때문에 잘라간다고 했 다. 자기네 의자라면 그렇게 험상궂게 칼질을 하지는 못 했을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한다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문제이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딸」 「우리 오빠」 「우 리 강아지」 「우리 동네」 「우리...」 해서 <나>라는 말보 다도 <우리>라는 말을 더 즐겨 쓰는데 바로 「우리 민족」 이 아닌가 싶다. 「내 어머니」 「내 동생」 이라고 불러야 할 텐데도 굳이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이라고 불러 그렇게 따뜻하고 푸짐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하지 않는 흠이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인 정이 넘칠 수 없다.

우리 민족이 쓰는 말씨로 보아서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민족은 아닌성 싶은데도 하는 것을 보 면 영 탄판이다. 권커니 잣커니 하는 술자리의 인정이라 든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는데도, 정작 잘해야 할 때 목에 가서는 제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영 엉망이 되 고 만다.

<우리>라는 말처럼 기독교적 우애가 넘치는 말도 없을 성싶다. 하느님 안에 한 형제인 <우리>들이 아닌가? <우 리>라는 말을 즐겨 쓰는 민족이야말로 하느님께 축복받 은 민족임에 틀림없다. <우리>라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 고, 또 그렇게 쓴다면은. <갑>

성서 성물은 성 바오로 서원 에서

지성인의 필독서  
계간 전망(展望)

		중	앙	노	송	등	덕	진	북	자	서	학	등	진	동
교 리 자	예	일 (11시)	일 (11시)	일 (11시)	일 (11시)	일 (11시)	일 (11시)	일 (11시)	일 (11시)					일 (11시)	
	비	화. 목 (10시)	화. 목 (오후 8시)	화 (오후 7시)					수 (저녁미사후)					일 (오후 8시)	
	자	화. 목 (오후 8시)	수. 토 (오후 7시)												
시 간	아	토 (오후 3시반)	토 (오후 3시)	토 (오후 3시)	일 (오후 2시반)	일 (11시)	일 (9시)	일 (9시반)							
	학	일 (9시)	토 (오후 4시)	토 (오후 4시)										일 (11시)	

\* 대화의 광장 \*

● 잔디밭 ●

<<일치 주간>>

### 하나가 되게 하소서 \*\*\*\*\*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반석(磐石)위에 세운 교회가 오늘날 500여의 교파로 갈라지고 말았다. 마치 박테리아가 분열되듯이. 그러나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교회의 신자들을 나무라신 말씀-그리스도는 분열될 수 없다-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분열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한 포도나무의 가지요, 착한 목자를 따르는 한 우리의 양인 것이다.

그런데도 사도시대의 유대이즘(Judaism, 사도 행전15장)을 비롯하여 분열의 극에 달했던 중세기의 소위 종교 개혁에 따르는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을 제쳐놓고라도; 오늘날 동방의 이 조그마한 한국에서 발단한 통일교회에 이르기 까지의 분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서로 단죄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이제 이 지겨운 분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새로운 각성은 시작되었다. <갈려나간 형제>들의 세계 교회 협의회(W. C. C)와 공의회의 움직임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문제는 매우 어렵고, 그 앞길은 요원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 일은 성직자나 신학자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크리스찬의 과제인 것이다.

사도성 바오로의 개종축일 (1월25일)을 기해서 1주일간 (1. 18-25)은 일치주간으로 모든 크리스찬이 일치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때이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진리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일치」를 향하여 뜨거운 걸음을 쉬지 말아야 하겠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하여 주시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의면하지 말자.

<<고마운 분들>>

### 영원히 빛나리

천주교 전통교회가 교구 발전의 반석이 되게끔 교회 확장에 힘을 보태 주신 은인 이신-고 이춘화<토마스>고 이춘의<마티아>고 이춘옥<시몬>-3형제 가운데 맏이신 고 이춘화씨의 23주기가 오는 1월 16일이다.

이날을 맞아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 그 업적을 더듬어 그 뜻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분들의 업적을 당시에 살던 분들은 거의 모르는 분이 없고, 지금도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기억이 생생하리라 믿는다.

고 이춘화씨는 1931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40년전 당시 해성학원 교사 5교실<현재 성심여중 고교>을 신축하여 배움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었고,전통 성당 제대,성당 둘레의 벽돌담,철문등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술정이<현재 해성 중 고교 자리>에 대지를 구입하여 순교하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한 돌 십자가를 세우고, 원주군 용진면에 야산을 구입하여 신자들의 공동묘지 <옛날 공동묘지>를 만들어 전주 시내의 모든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며,이리와 관촌에 성당을 신축하였다.

고 이춘의씨는 전통 성당 수녀원<성심학교 구내에 당시 양옥으로 세워졌으나 지금은 이전되었음>을 지었다.

고 이춘옥씨는 전통 성당 대강당<지금도 교회 미화를 위하여 이전되었음>을 지었다.

이렇듯이 3형제 교인들은 교회 발전에 많은 재산을 아끼지 않고 봉헌하였다. 이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자 전통 성당 사도회는 「1월 16일 밤 7시 특별 추도 미사를 봉헌한다」

많은 교우들이 이 미사에 참여하여 그분의 봉헌 정신을 높이 기리고,우리들도 교회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묵상하자. (전통 사도회)

독자 원고 모집 (해성학교 ㉸3998 한상갑-200자 3매 내의 또는 7매, 사진동봉 바람)

####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3498)

15<월> 지성인 교리 교실<제2기-박 신부 지도>

16<화> 여성 교실<요리 강습>

※ 오후 2-4시 ※ 많은 참석 바랍니다.

17<수> 메크레이션 교실<진전한 노래와 즐거운 게임>

18<목> 외국 문화 교실<불어>

19<금> 지성인 교리 교실<제1기-문 신부 지도>

※근하 신년※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교사동 1가 오거리동 (동아여관앞) 전화 ㉸6094

※근하 신년※

### 동남 샵 TV 및 스토-브 전주 대리점

전주극장 입구 ㉸5504  
여요셉(운창)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중암)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순

- 1. 꾸리아 월례회 : 오늘 오후 2시부터 강당에서
- 2. 혼배성가 : 15일 (월) 오전 10시 혼배성가 미사 있음

결

축

혼

신랑 문기철(베드로) 신부 배순  
1월 15일 10시

사제양성 후원 기금

성소 개발 및 사제양성 후원을 위해 우리 모두 협심하여 본회에 가입하고 많은 기금을 지원합니다.

1월 9일 현재 기금 불현자

강제회...50,000	정주복...50,000	김병구...50,000
이복석...50,000	김귀권...50,000	안신부님...50,000
전준선...50,000	엄경순...50,000	진을순...5,000
서병완...10,000	김종순...50,000	이상범...30,000
황의선...10,000	강화자...10,000	이강로...5,000
양학도...30,000		누계 550,000원

지난 주일금 (30,065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이태영

- 1. 노송신용조합 월례회<1월 14일 공식미사후>
- 2. 부녀 월례회<1월 21일 공식미사후>
- 3. 각구역 포란치스교 재속 형제 회원은 주회에 성실히 참석하시어 재속 수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 4. 주일학교 방학기간에 토요일 미사에 성실히 보내주실것을 부모님께 부탁 드립니다.
- 5. 중 고등학생 교리 강좌<토요일 오후 4시>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6. 본당 신축 위원회에서 교우 여러분께서 신축기금을 속히 납부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결혼을 축하합니다. <1월 21일 오전 11시에>

임형순<노펜조>군과 박순규<요안나>양

※ 지난 주일 헌금 (8,438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 1. 신용조합 월례회<1월 21일 공식미사후>
  - 2. 제3차 덕진성당 동계 피정 안내
    - ① 때 : 1월 25일 9시50분~26일 오후 5시
    - ② 참가자격 : 본당 관내 신자,예비신자<공소포함>
    - ③ 참가비 : 1인당 300원<식비포함>
    - ④ 준비물 : 보포 한장,성경책,가톨릭 기도서, 목주, 미사포, 세면도구, 필기도구등
    - ⑤ 접 수 : 1월 23일까지 학생회장에게
    - ⑥ 주 최 : 덕진 성당 중 고등학생회
    - ⑦ 후 원 : 덕진 성당 사도회
- 지난 주일금 (3,928원), 감사 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재속 전주 형제회 특별 피정에 35명의 형제들이 참가하여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 가을 판공 성사 현황

- ① 133명<남 163명, 여 370명>
- ② 아직 성사 안보신 분은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간 성미 (3말 2되) 누계 75말 2되
- 지난 주일 봉헌금 (11,245원)
- 구유 봉헌금 (9,683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 1. 교무금 수입 현황<73. 1. 14현재>  
총 세대수 315세대 신입 세대수 272세대  
미신입 세대수 43세대
- 2. 신용 조합 통장 회수<1월 14일까지>  
이익 배당금 할당을 위해 회수 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 3. 결혼을 축하합니다<성가대 참석 바랍니다>  
석영환 군과 손순자 양<1월 17일 10시>  
김용군과 위옥남 양<1월 18일 11시>
- 4. 졸업을 축하합니다

강경식, 강귀만, 김성문, 김성진, 김수연, 김용주, 김정래, 김진양, 김태립, 박부남, 박정애, 박홍식, 송영완, 송춘미, 유양희, 이부연, 이용후, 이정희, 이현신, 임경자, 전영신, 최장민, 최경해, 최은영, 최태영

□ 지난 주일 봉헌금 <7,052원>

지난 주간 교무금 <32,20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 1. 사도회 피정 (1월 20일 오후 1시반-10시)
    - ① 장소 : 성심 유치원
    - ② 참가대상 : 사도회 임원, 구역회장, 반회장, 각 신실단체 임원 (L.M, J.O.C, 자모회, 교리 교사회 기타)
    - ③ 강의 내용 및 강사
      - ㄱ. 신앙 생활과 생명의 은총(박진량 신부)
      - ㄴ. 평신도 : 사도직 천 건(성심여교 교감)
      - ㄷ. 공부 : 조성호 (해성중 교감)
    - ④ 지침물 : 성경, 기도서, 목주, 성가책 필기도구
  - 2. 자모회 월례회 (1월 14일 공식미사후, 사제관)
  - 3. 은인을 위한 특별 위령미사 <1월 16일 밤 7시>
  - 4. 꼬미시움 준비회합<1월 19일 밤 7시반>
  - 5. 애령회 특별헌금 있습니다.
  - 6. 신용조합 월례회 <1월 15일 밤 7시반>
- ※ 지난 주간 성미 <1말4되, 헌금 850원>  
지난 주일 봉헌금<26,876원>  
구유헌금 <3,257원> 감사합니다.

		중 암	노 송 동	덕 진	복 자	서 학 동	전 동
미 주	오 전	6시반,10시	6시반,10시	10시	10시	10시	6시,10시,11시
	오 후	7시(토요특전5시)	7시(토요특전5시)	4시,7시(토요 특 전 7시)	7시	7시	7시
시 평	오 전	월.수(6시반) 금(10시)	금(10)	월수.금(6시반)		월 목(7시)	월.화.목금(6시)
	오 후	화목(6시)	화.수.목(6시반)	화.목(7시)	매일(7시)	화수금토(7시)	수.토.(7시)